

대안 공동체 경제 논의와 제주지역 사례: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

권상철*

Alternative Economies Examples in Jeju: Village Fishery and Isidore Farm as Community Economies

Sangcheol Kwon*

요약 : 최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확대에 따른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이 대안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기초한 공동체 경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 자원에 기반한 경제 활동을 발전시켜온 경험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한국에서의 대안 경제 논의는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서구의 경험과 제도에 치중하고 있어, 국내의 소지역 경험을 세계 다른 지역의 보편적 원리와 더불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는 공동체 경제 사례로 마을 공동어장을 공유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 이시돌 목장을 생산과 복지를 포괄하는 협동조합형 지역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지역 공동체 경제 사례를 외국의 경험과 더불어 찾아보는 노력은 대안 경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천적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주요어 : 공동체 경제, 공공재, 협동조합, 제주, 마을 공동어장, 이시돌목장

Abstract : Diverse alternative economies have been discussed to overcome the problems with the globalizing neoliberal capitalism. Social economy and cooperatives are those focusing on the community economies; most countries have local economy-society based on mutual aid and common properties. Various experiences and institutions across local areas have been evolved to keep using their local resources in sustainable way. While recent social economy discussions in Korea are mostly in relation to economic crisis and focus on the Western experiences and institutions, the local area experiences in Korea are similar to the rules universal across countries along with particulars developed from local circumstances. Jeju has maintained village common fishing ground and Isidore farm which has been developed as an innovative type of cooperatives. These cases help to find community economies in practices and studying local experiences would enhance the opportunity to succeed in finding and practicing real alternative community economies in other local areas.

Key Words : Community Economies, Commons, Cooperatives, Jeju, Common Fishing Ground, Isidore Farm

이 논문은 2015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Geography Education Major, Jeju National University, kwonsc@jejunu.ac.kr)

1. 서론

최근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확대에 따른 폐해 극복을 위한 대안 경제를 모색하는 노력이 사회적 경제, 공동체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국외와 국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Gritzakos and Kavoulakos, 2015; Peredo and Chrisman, 2006; 신명호, 2009; 김상준, 2008). 대안 경제 논의는 오랜 발전지향적 개발과 이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와 환경 파괴 등의 문제, 특히 최근 확산 일로에 있는 빈곤과 실업 문제를 지역 공동체를 통해 완화시켜 보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다(Fickey, 2011; 꿈지모 역, 2013; 채종현, 2013). 넓게 후기발전주의로 포괄할 수 있는 이들 논의들은 성장 지향의 경쟁보다 활기 지향의 협동, 전문화보다 다각화, 환경적 지속불가능보다 환경적 지속가능, 민간-비지역 소유보다 공동체-지역 소유 등의 주류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는 대비되는 특성을 강조하며 대안 경제를 모색하고 있다(조효제 역, 2014; Escobar, 2012; Gibson-Graham, 2006).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경제는 집합적으로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정건화, 2012; 신명호, 2009) 그리고 민주적 참여와 자조에 기초한 협동조합(이인우 역, 2012; 이종현, 2014) 등을 구체적인 형태로 언급한다. 이들 공동체 경제는 현실적으로 상당수는 공유재에 기반하고 공유재의 이용과 관리는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역 공동체 단위로 상황에 따른 규범으로 제도화된 형태를 보이며 다양하게 나타난다(꿈지모 역, 2013; MacAulay, 2001; 윤홍근 외 역, 2010). 협동조합은 가장 제도화된 공동체 경제로 최근 논의는 산업화 시절 유럽에서 그리고 2000년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를 대안 또는 보완 경제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들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Gritzakos and

Kavoulakos, 2015; Fickey, 2011). 한국은 2012년 협동조합법을 시행하며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제도화와 정책화는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져 지역은 이를 적용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김기홍, 2014).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공동체 경제는 자율과 참여라는 기본 원칙 아래 시장과 국가 주도를 넘어 생활 터전에서 자율적인 경제 공동체적 존재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다수의 나라에 전통적인 경제-사회 형태로 마을 단위 공동체 경제가 있어 왔기에, 현실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도적 측면을 발굴하는 데 새로이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윤홍근 외 역, 2010; Gibson-Graham, 2006).

이 글은 대안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주 지역의 공동체 경제인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현재에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경제-사회 체계로 마을 공동어장은 공유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관리, 이시돌 목장은 협동조합형 지역 발전 사례로 고려할 수 있다. 지역 공동체는 서구의 연구 전통에서 전통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한국에서의 관심도 서구의 제도와 방식을 적용하는데 치중하는 모습으로, 한국에 있어온 전통적 공유 경제와 협동조합형 지역 발전 경험을 검토하는 작업은 시기적절하다. 제주지역 경험은 다양한 대안 경제 논의를 실제 지역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사례이기에 대안 경제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경제 대안: 공동체 경제, 공공재, 협동조합

경제 영역은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와 국가 경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아직 존재하는 전자본주의적 농업 공동체의 호혜 경제로 구분되는데,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며 국가 경제와 호혜 경제는 점차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도권 아래로 포섭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 시장 경제 논리가 전체 경제를 포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서 새로운 유형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 주목을 받는데, 이들은 사회적 경제, 연대 경제, 협동 경제, 제3섹터 경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점차 그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이다(김상준, 2008).

새로운 경제들은 각각의 이름별 특징을 가지지만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경제를 모색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로 고려한다면 경제 활동의 50퍼센트가 넘는 다양한 경제가 존재하고 있어 자본주의만이 지구상의 유일한 경제 방식이 아니라 비자본주의적 다양한 경제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를 제기한다(황진태, 2012;

최영진, 2010).¹⁾ 이는 또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던 공동체적 호혜 경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을 재발견해 환경 악화와 빈부격차 문제의 극복 방안을 찾아보는 관심과 노력을 제안한다(윤홍근 외 역, 2010; Gibson-Graham, 2006).

대안 경제 논의는 경제사회적 위기가 심화되며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이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로 인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노력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국가, 지역에는 전통적인 공존의 경제 방식이 있었기에 이를 찾아 의미를 부여하고 확대하는 것이 새로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안 경제는 주류 자본주의의 경제와 시장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은 가정 경제내 업무, 토착민의 물물교환 등의 거래, 미지불 노동으로 가사 노동, 동네의 일, 자원 봉사, 비자본주의의 공동체 기업 등을 포함하는 비시장경제의 사이에 있는 활동으로, 여기에는 정부 영역을 제외하면 관습적 토지 소유, 공동체 토지 신탁, 상호호혜적 노동, 비영리 사회-환경 책임 기업, 공정무역, 공동체 협동, 신용조합 등이 포함된다(표 1).

표 1. 다양한 경제: 주류 경제 대비 대안 경제

	자산	노동	기업	거래	재정
주류 경제	민간	임금	자본가	시장	주류 시장
대안 경제	민간 대안 - 정부관리 자산 - 관습적 (종족) 토지 - 공동체 토지 신탁 - 토착 지식(지적 재산)	대안적 지불 노동 - 자영업 - 상호호혜적 노동 - 비금전 현물 지급 - 복지를 위한 일	대안적 자본가 - 국영 기업 - 비영리 기업 - 사회적 책임감 - 환경적 책임감	대안적 시장 - 공정무역 - 대안화폐 - 비공식, 지하 시장 - 물물교환	대안 시장 - 협동은행 - 신용조합 - 공동체 금융기관 - 소액 금융
비 시장 경제	개방된 접근 - 대기 - 국제수역 - 개방 정보제공	미지불 노동 - 가사노동 - 자원봉사 - 자기-재충전 노동	비자본가 - 노동자 협동조합 - 개인기업 - 공동체 기업	비시장 - 가족내 공유 - 선물 교환 - 사냥, 어업, 채집	비시장 - 노동투입 주택소유제 - 기부 - 무이자 대출

자료: Gritzas and Kavoulakos(2015)의 Gibson-Graham(2006) 인용 내용을 일부 수정

대안 경제의 구체적인 형태는 공동체 경제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은 주류 경제와 대비적인 특성을 경제, 사회, 환경, 지역 등의 측면에서 드러낸다(표 2). 예를 들어 시장 경제는 성장을 지향하는 경쟁, 잉여의 사적 전유와 배분에 치중하는 반면 공동체 경제는 활기를 지향하는 협동, 잉여의 공동 전유와 배분을 지향하는 모습이다. 또한 시장 경제는 지역 문화와 사회와 연계되지 않은 반면 공동체 경제는 지역 문화와 사회의 독특성에 기초하여 장소 귀속적인 지역 소유의 경제로 협동에 기반한 공동체 지향의 특성을 보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목표를 지향점으로 한다.

공동체 경제는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계와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공유재를 매우 중요한 경제 기반으로 포함한다. 공유재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관습적인 권리를 가지며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구할 수 있는 윤리 경제의 한 부분을 이룬다(꿈지모 역, 2013). 그러나 시장 경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근대적 세계관으로, 자연을 단순히 자원으로 환원시켜 그 물질적 기반인 공유재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켰다(하승우, 2009). 따라서 공동체 경제는 근대화 과정에서 오랫동안 자원 관리의 원칙으로 강조되었던 공유지의 비극론에 대한 대안으로도 옹호되고 있다. 공유지 비극론은 산업화 시

절의 환경과 발전에 대한 대중적 사고로 주민들이 공유지에 이기적으로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재산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공유지는 시장 원리에 의해 사적 소유나 상품으로 바뀌고 국가는 이런 사유화된 질서를 보장해 왔다. 대다수 공유지는 시장과 국가 권력이 약탈했고, 공유지에 기초한 공동체의 전통과 결속은 파괴되었다(하승우, 2009; Heynen *et al.*, 2007).

공동체는 상호부조에 기반하고 공유재의 공동 이용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진다. 즉 공동체는 경제 기반 없이 존립할 수 어렵기에 공유지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공동체 경제 모색에 중요하다(김기홍, 2014; 김준, 2004). 개발도상국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전유되지 않은 공유재를 보호하려 삼림을 위한 인도의 칩코 운동, 코차 밤바의 물 민영화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하고, 탄소 거래제는 신식민주의로 비판받는 등 공유재의 사유화, 자연의 상품화에 대한 저항이 표출되고 있다(Thoms, 2008; St. Martin, 2009; 권상철·박경환 역, 2014). 한동안 공동체 경제는 전통 사회, 제3세계의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전통으로 인식되었으나, 근래 공유재 관리의 살아 있는 전통적인 규범과 제도, 그리고 관련한 상호부조 문화의 가치는 선진국에서도 재인식되며 공유재 회복과 창조

표 2. 주류 경제와 공동체 경제의 특성 비교

주류 경제: 시장 경제	대안 경제: 공동체 경제
성장 지향, 경쟁 민간, 수출 지향, 단기적 반환 가치 잉여의 사적 전유와 배분, 비윤리적 전문화된, 관리되는 대규모 노동의 공간분화 참여 비문화적,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비지역 소유, 비공간/세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활기 지향, 협동 공동체, 지역시장 지향, 장기적 투자 가치 잉여의 공동 전유와 배분, 윤리적 다각화된, 공동체 주도 소규모 지역 자립적인 문화적으로 독특, 사회적으로 배제된 지역 소유, 장소 귀속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료: 구양미 외 역(2014)의 Gibson-Graham(2006) 인용 내용을 재구성·재배열

적 공유 경제의 확대로²⁾ 이어지고 있다(Gibson-Graham, 2006; 최현 외 역, 2014).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온 공유재의 수많은 사례들은 이용과 관리의 전통 규범과 제도에서 공통점을 보인다(윤홍근 외 역, 2010). 오스트롬(Ostrom, 1990)은 이들을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s)로 도출했는데, 예를 들어 공유 자원은 그 이용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자치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고, 집합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는 등의 측면들은 신뢰를 형성하는 토대로 역할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 외 경제적 합리성, 민주적 참여, 적절한 처벌 방식, 자율성 등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명확한 경계가 없다면 비용을 내지 않고 가져가려는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어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결국 공동체 경제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경제의 상호부조와 관리 규범들은 근대적으로 구체화되고 제도화된 형태인 협동조합, 특히 지역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개인, 특히 서민들이 특정의 문제를 힘을 합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어느 곳이든 있을 때 생겨난다. 최초의 협동조합은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생필품 조달을 위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자발적

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시작되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생계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의 소비협동조합에서 시작하여, 고리대금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 점차 농축산업, 노동자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되며 그 수와 종류는 늘어나고 있다(김성오 외, 2013).

그러나 협동조합은 점차 너무 다양하게 정의되고 정체성이 모호해지며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은 공통의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기업의 형태를 띠는 조직으로 정의를 한다(채중현, 2013). 현재 국제협동조합연합은 협동조합 7가지 원칙을 표방하는데, 기본적인 필수 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 참여, 자율과 독립 그리고 시대적 변화를 수용한 원칙으로 교육, 훈련 및 홍보 활동, 협동조합간의 협동,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다(김성오 외, 2013).

국제협동조합연합의 협동조합 원칙은 자본주의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는 대조를 보여,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은 주식회사의 투자금 비례 1주 1표와 달리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를 가진다는 것을 가장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다른 원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변화를 보이는

표 3. 오스트롬(Ostrom, 1990)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유 자원 제도에서 확인된 디자인 원리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 공유 자원 인출 가능자의 구체적 정의, 공유 자원의 명확한 경계
2. 현지 조건과 부합하는 사용, 제공 규칙 - 자원 사용의 시간, 공간, 기술, 수량 등 규칙 현지 조건과 연계-일치
3. 집합적 선택 장치 -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 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 허용
4. 감시 활동 - 공유 자원의 현황,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시, 요원은 사용자 중에서 선발
5. 점증적 제재 조치 - 규칙 위반자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맥락에 따른 점증적 제재 조치
6. 갈등 해결 장치 - 사용자들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수준의 갈등 해결 방안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권리
* 공유자원 체계가 대규모 체계의 부분으로 있는 경우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 사용, 감시 활동, 분쟁 해결 등은 중층의 정합 단위로 조직화

자료: 윤홍근 외 역(2010)의 내용 재구성

데 1966년부터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을 신설하여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동을 장려하여 세계화와 함께 성장하는 다국적기업들의 경쟁에 맞서고자 하였다. 1995년 원칙에서는 우선 협동조합에 대한 시장의 잠식과 국가의 통제 강화에 대한 자율성과 자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에 의한 자율과 독립의 조직체임을 분명히 하였고,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함과 함께 비조합원의 일반인 대상 홍보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협동조합기본법 또한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협동조합은 기업으로의 성공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 그리고 지역 사회에의 공헌을 모두 달성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이자 결사체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채중현, 2013).

협동조합의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원칙은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에서 새로 추가되었다. 이 원칙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지역 경제의 쇠락에 대처하고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형성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앙집권화된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로 속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을 통해 지역의 힘을 강화시키며 사회적 기여

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김성오 외, 2013; 채중현, 2013).

협동조합의 성공적 사례는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이 가장 대규모의 성공적 모델로 소개되고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이탈리아, 캐나다 등지의 경험 또한 빈번히 다루어진다(김성오 외, 2013; 이종현, 2014; 이인우 역, 2012). 이들 성공적 협동조합의 경험은 자본가적 기업체, 정부 또는 자선 기관보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지역 공동체 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성장과 더불어 규모가 커지면 민간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며 점차 본연의 민주적, 형평성의 강점을 지닌 기업이자 결사체의 성격은 약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협동조합이 기업의 성공과 조합원의 복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종종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협동조합이 기업의 성공과 조합원과 지역의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목표가 시작부터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민을 필요로 한다.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경우 기업의 성공이 중요하기에 참여 의욕이 강한 핵심 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의 규모는 작는데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의 어려움이 있고, 협동조합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중

표 4. 국제협동조합연합의 협동조합 원칙 변화

	1937년 원칙	1966년 원칙	1995년 원칙
기본적 필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호의 개방 • 민주적 운영(1인 1표) • 이용고에 따른 잉여금 배당 • 출자금 이자 제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와 개방 원칙 • 민주적 관리 원칙 • 잉여금 분배원칙 • 출자금 이자 제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공개적 조직 • 민주적 조합원 관리 • 조합원의 경제 참여 • 조합원에 의한 자율과 독립
시대적 변화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종교적 중립 • 현금거래 • 교육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촉진의 원칙 • 협동조합간 협동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훈련 및 홍보 활동 • 협동조합간 협동 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노력

자료: 채중현, 2013

중 지역 소유가 아니라 조합원 소유였으며, 애초부터 공동체 기업이 아니라 지역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김창근, 2009). 반면, 지역의 복지를 강조해 마을 단위로 출발할 경우 그 반대의 상황으로 구성된 개인별 입장 차이가 있을 것으로 결속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협동조합은 공동체 경제와 마찬가지로 상호 부조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 사회를 뛰어넘는 사업의 성장은 그 자체로 결속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어 지역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지역 사회와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지역 사회를 나누는 경계가 사라질수록 협동조합의 힘은 커지고 더불어 지역 공동체도 부활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하승우, 2013). 여기에 협동조합을 대안 공동체 경제로 고려하는 경우 이윤을 내는 것은 중요하며 그 이윤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하다(MacAulay, 2001; 이인우 역, 2012). 이윤을 일자리 창출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한다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역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사례들은 지역 공동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모습으로 대안 경제의 여러 형태 중 공동체 경제와 협동조합 두 형태는 모두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지역성을 부활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하승우, 2013; 이소영, 2012).

다음에서는 공동체 경제, 협동조합 논의가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고 서구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주의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을 지역 공동체 경제-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킨 사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제주지역 공동체 경제 사례: 마을 공동어장, 이시돌 목장

대안 경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색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소비, 노동자, 복지 분야, 개발도상국의 경우 생산과 지역 발전 분야가 주로 언급되는 차이를 보인다(Peuter and Dyer-witthford, 2010; 이종현, 2014; 이인우 역, 2012). 개발도상국에서는 공동체 경제가 상당수 공유재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들 공유재는 자본주의 이윤 추구의 원시적 축적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한다. 오랫동안 공유지 비극론은 환경 악화의 문제를 사유화 방식으로 해결하는 정책의 기저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부의 축적을 위한 논리로 비판을 받고 있다(하승우, 2009; 권상철·박경환 역, 2014).

공유재는 세계 많은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공동체의 기초로 현재 이용가능한 공유재와 더불어 새로이 공유재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생산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지역 또는 마을 단위의 공유재 이용과 관리 그리고 보다 조직화된 협동조합은 경제와 더불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하게 역할 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김경희, 2013; 나종석, 2013; Agrawal, 2001). 공유재 관리의 제도적 측면은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서 찾을 수 있으며, 협동조합의 경우 소비 분야에 집중하고 있지만 생산 활동 특히 농촌 지역의 발전에서 농축산 분야는 빈곤 탈피에 중요하게 역할 한다. 제주는 기존 이용가능한 공유재를 마을 단위에서 이용-관리하며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마을 공동어장 그리고 새로운 공익 기업 활동을 통해 협동조합형 공동체 경제를 유지,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으나 공동체 경제 사례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공동의 협력적 삶을 영위하는 보편적

경우로 대안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유재 관리의 연구에 더할 수 있는 사례로 검토할 수 있다.

1) 공유재 이용과 관리: 마을 공동어장

어업은 선사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이루어졌으나 19세기 말 상업적 어업으로 바뀌며 집약적이 되고, 20세기 말부터는 산업적 어획으로 발전하며 어류와 어획량 감소의 남획 위기를 맞게 된다. 남획은 공유재 비극론에 따르면 어부들이 무임승차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자원에 대한 규제와 소유권 부재의 문제로 접근한다. 규제는 자원과 어획 능력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위한 어선 감척 정책으로 소유권 부재는 어업에 재산권, 즉 어부에게 특정의 할당량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제도로 나타나는 데, 이들은 공유재에 대해 단순한 개방 또는 폐쇄의 접근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Mansfield, 2004; 김준, 2004).

어업 규제는 어업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어촌의 역동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서로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상호의존자인 어부들에게 어선 감척은 어획 능력 감소로 이어져 어업 공동체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근대화화 및 경제 발전을 추구하며 감척은 소규모 어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점차 어획량은 이전가능한 재산권 형태로 큰 선박과 대기업으로 집중된다. 따라서 사유화된 할당은 남획을 줄이기보다 부유한 사람에게 어획량을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어류 남획의 방지를 목표로 한 규제와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업 공동체에 또 다른 비극을 유발하게 되었다(Mansfield, 2004).

정부 주도의 하향식 어업 관리는 근래 들어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자율관리 어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율관리 어업은 어획 관리에 어업인과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

식으로, 특히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자율관리 또는 협동관리(co-management)로 일컬어지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 방식은 공식적으로 주목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오랫동안 어업 현장에서 이루어져 왔던 관행이었다(Ovando *et al.*, 2013; Bssurto, *et al.*, 2012). 어부들은 공유재 비극론과는 달리 오랫동안 세계 대다수의 지역에서 어획 활동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제한하는 분명한 그리고 암묵적 규칙을 서로 소통, 협력하며 시행해 왔다(St. Martin, 2009; 윤희근 외 역, 2010).

한국의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부터 추진하여 시범실시에 이어 200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자율관리 어업은 마을 공동어업에서 특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어촌 마을에 대한 생존권 배려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어촌 공동체에 자율적인 어장과 어획 관리를 위임한 결과이다. 어촌계는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어업조합이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며 생긴 지구별 수협의 자연 마을별 하위 조직으로 공동어장 관리를 맡게 된다. 그러나 어촌계는 오래전부터 오랜 협업 방식으로 마을 공유 자산을 관리하며 등장한 자연 발생적인 조직의 현대적 형태이기에 어촌계의 조직 운영 원리는 대부분 전통적 방식을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어촌계는 어촌의 공동어장을 경계구역으로 삼거나 자연촌 또는 어촌 행정 촌락 1개 또는 그 이상을 구성단위로 한다. 어촌계는 지역 주민의 공동 이익을 위해 공동 경영 방식을 취해 공동어장은 평등 노동, 평등 출자, 그리고 평등 분배를 지키고 있다(한규설, 2001).

제주는 지리적 특성으로 항구 발달이 미비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어선 어업이 산업화 되지 못해, 어업은 평균 수심 15미터 이내의 제1종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³⁾ 연안의 공동어장은 마을어장으로 불리며 어촌계의 규범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세계 여러 지역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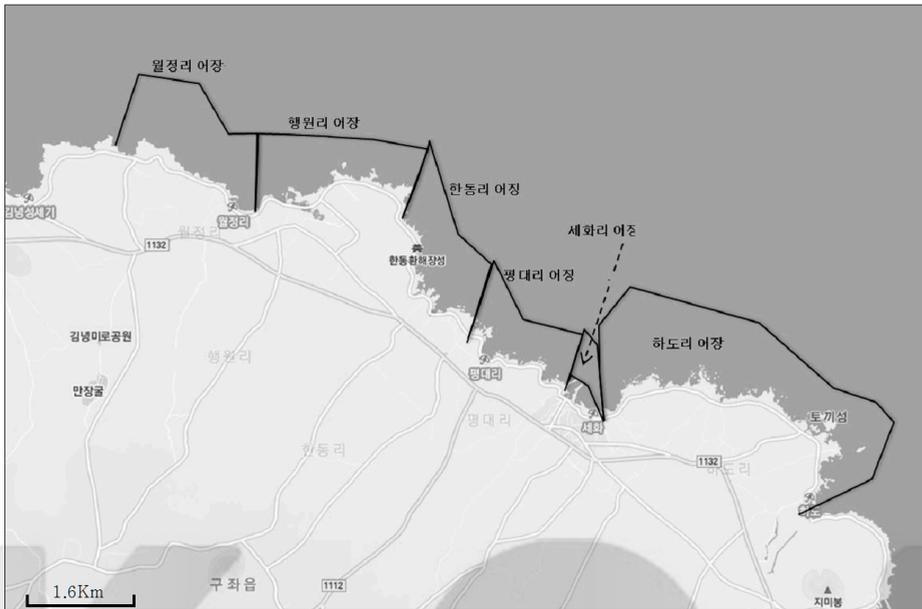


그림 1. 제주 북동부 해안의 마을 공동어장

재 관리에서 나타나는 규칙과 유사한, 예를 들어 외부인들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여 마을 주민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면서 마을 주민 내부의 갈등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의 이용에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고 공유지 남용을 규제하는 등 마을 공유 자원을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이용하는 방식과 규범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 주요 어업 활동은 채집으로 어촌계의 산하 단체로 마을마다 해녀들로 조직된 자생 단체인 잠수회가 있다. 잠수회는 어장의 관리나 질서의 유지를 맡으며 어촌계의 공동어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주의 마을 공동어장 이용과 관리는 전통적 방식과 규범이 현재까지도 잘 유지되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한 제도로 평가받는다(김경동, 2011; 안미정, 2008).

제주 마을 공동어장은 어장 관리를 위한 공동 작업에의 의무적 참여, 공동 비용 지출과 공동 감시 역할 담당, 권리권 양도 제한, 신입 회원의 자격

부여, 그리고 모든 일은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따라 이용, 관리 된다.⁴⁾ 마을 공동어장의 어로 형태는 공유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공동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는 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되는 가를 보여주는데, 어촌계와 잠수회의 중첩적인 조직은 협력적 관계로 잠수를 통해 획득되는 해초류와 패류 중, 툃과 우뭇가사리 등의 해초는 어촌계에 소속된 해녀를 포함한 모든 계원들이 공동으로, 패류는 잠수들만이 채취한다. 또한 채취물의 종류와 함께 작업을 개별과 공동으로 구분하여 수행함으로써 어장의 질서와 사회경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표 5).

어로 형태 중 개별은 잠수들의 물질이 대표적으로 마을어장에서 가장 길게 이어지는 작업 형태이며 판매에서 비계통 출하가 없다. 공동팀은 몇몇 개인이 모여 팀을 구성하여 함께 일하는 협력 작업으로 우뭇가사리 채취에서 볼 수 있다. 조합 공동은 해초 채취에서 볼 수 있는 어로 형태로 동

표 5. 제주도 연안바다의 어로 형태

구분	개별	공동팀	조합공동
채취자	잠수	동네 잠수들	동네 어촌계원
분배	개별분배	참여자 공동분배	가구별 분배
종류	패류와 그 외	우뭇가사리(감태, 풍초)	해초
방식	연중 8개월간	한시적, 팀의 자율	한시적, 각 동별 자율
시기	여름 외 연중	늦봄과 여름	봄, 늦봄 2기
판매	계통출하	비계통·계통출하	비계통·계통출하

자료: 안미정, 2008

네별 조합들이 작업과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출하는 모두 지구별로 조직된 수협을 거치지만, 해초는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들 어로 형태는 작업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수확물인 해초는 가구별로 공동 분배되고 패류와 그 외의 것은 개인별로 정산된다. 이와 같이 어촌계원의 어로 작업은 해양 자원의 생태적 서식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로 형태에 따라 개별과 공동의 분배를 달리 하고 있다(안미정, 2008).

잠수회는 또한 마을어장 내의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전복의 작은 종패를 뿌리는 등 자원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잠수회에서는 누구나 보이는 곳에 양식장을 설치하여 항상 감시원을 두어 지키고 있으며, 양식장에 몰래 입어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잡은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린다. 잠수회의 어장 관리는 패류를 지키기 위한 감시 활동과 더불어 이들을 깊은 바다로 옮겨 산란을 도와주는 조직적 공동 작업도 포함한다(안미정, 2008). 마을어장은 잠수들에게 공동 재산으로 신입 잠수 회원에게는 가입비를 징수하고, 불법 행위에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내부 규칙을 엄하게 적용하고 있다. 중요한 수확물인 소라의 경우 고갈에 대비하여 산란 시기는 금채기로 정하고 1991년부터 시행된 전국적인 총허용어획 규제의 첫 해산물로 지정하였다. 잠수회는 지역별로 자신들이 바쁜 시기를 자체적인 금채

기로 정하여 공동의 자율적 관리를 시행하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관리하는 관행과 규범을 따르고 있다.

마을 공동어장의 공동체 규율은 잠수들이 개별적으로는 경쟁적 소라 채취를 하면서도 어장 황폐화의 비극적 상황을 맞지 않도록 배타적인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무제한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독점과 공생을 동시에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장 규율은 잠수 사회의 자율적 질서이며 어장을 가꾸어 나가는 불문율로, 마을의 상황에 따라 나름의 합리적 방안을 찾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지식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제주 마을 공동어장 유지의 핵심은 총유(總有) 또는 준사유화, 즉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리는 공동체에 속하지만 그 재산의 사용과 수익의 권리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 속하는 개인주의적 공동의 소유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에서 어촌계-잠수회에 부여한 마을 공동어장의 관리 권한은 회원들이 자원과 환경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입 중 일부를 공동 수익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규범으로 나타나 공유재 비극론에서 제시하는 사유화보다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제도라 하겠다.

제주 마을 공동어장은 전통사회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공동체 경제의 한 모습으로 공동체적 유산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개별 어가 및

어촌 마을의 생존과 번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력과 합리성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경제 형태이다(김준, 2004). 이러한 모습은 세계 여러 곳의 성공적 공유재 관리의 연구에서 드러난 명확한 경계, 현지 조건에 부합하는 이용 규칙, 집합적 의사결정, 감시, 자치권 등 성공적 공유재 관리의 규칙(윤홍근 외 역, 2010)과 일치하기에 성공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 마을 공동어장의 이용과 관리 제도가 대안 경제의 한 방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없이도 자족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보다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주의 사례를 특정 지역의 민속, 문화적 독특성을 넘어 보편적 공동체 경제 형태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는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역 공동체 법인회사: 이시돌 목장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확대에서 드러나는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자치에

기반한 경제 조직의 형태로 조합원의 복리를 기본으로 한다. 협동조합은 보다 넓게는 운영을 통해 이윤을 내고 이윤을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재투자로 사용한다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복지로 목표 가치를 확대한다면 협동조합은 대안 경제로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의 협동조합은 급격히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설립 원칙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의 이윤보다 결속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받는다(이인우 역, 2012; 김성오 외, 2013).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이시돌 목장의 경험은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비영리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해 낙후된 농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한 협동조합형 지역 개발, 협동조합의 변형인 실천적 혁신, 또는 사회적 행동 모델로 고려해 볼 수 있다(양영철, 2013; MacAulay, 2001; 정규호, 2008).

제주 이시돌 목장은 1954년 맥그린치 신부³⁾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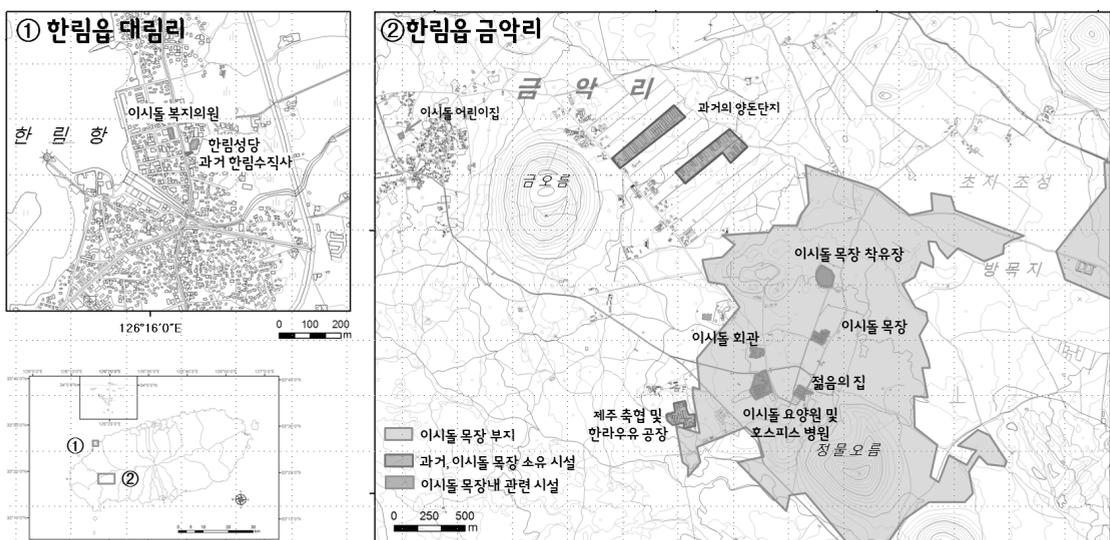


그림 2. 제주 한림읍 이시돌 목장

한림성당에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하며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림 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고단과 고난에 찌들어 있었고, 스스로 나서기보다 그저 저승의 조상에게만 기댔다. ... ‘조상의 못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면 빗을 내서라도 읊겼다. 4~5일 굶판을 벌이는 것도 빈번”해 이 지역의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양영철, 2013: 11).

지역 빈곤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은 1955년 전후 제주 토종 돼지를 개량종으로 바꾸기 위해 요크셔 품종 두 마리를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얻어 기른 일이었다. 사료로는 생선 내장과 클로버를 섞어서 먹였다. 1957년 맥그린치 신부는 청소년 25명으로 4H 클럽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돼지를 나눠주고 이들이 새끼를 낳으면 암컷 2마리를 가져오게 해 다른 회원에게 분양하는 식의 가족은행을 시작했다. 1959년경에는 일출봉 인근에서 기르는 양을 보고 성장기 아일랜드에서 양털로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본 경험을 되살려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려거나 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양을 길러 양털에서 실을 뽑아 옷, 양말과 담요를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직조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이는 이후 한림수직사가 되어 성수기때는 물레로 제품을 만드는 여성은 40명, 집에서 짜오는 재택근무자는 1300명에 이를 정도였다(박재형, 2004).

점차 돼지수가 늘며 성당 마당이 부족해지고 냄새도 심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였다. 현재의 이시돌 목장은 1961년 시작되었는데 금악리 일대의 땅 3천평을 매입해 4H 청년회원 20여명과 더불어 개간을 하며 초지를 조성하고 일본군이 썼던 군인 막사를 우리로 만들어, 돼지, 면양, 소를 키우며 축산 규모를 현재의 약 300만평 면적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시돌 목장이 규모를 갖추고 실습 목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자, 1962년 축산과 목초지 개량, 생산물 가공 등의 생산 활동과 더불어 교육과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

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하였다. 개발도상국 낙후지역에는 대부업이나 한국의 경우 계가 은행을 대신하고 있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고 계주가 망하면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아 신용협동조합은 초기 지역 발전에 필수적이다. 제주의 경우 부산에서 구호활동을 하면서 1960년 5월 한국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인 성가신용조합을 설립한 메리가별 수녀가 전국 신탁 설립을 지원해주고 있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1962년 한림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그러나 회원수도 적고 빈곤한 살림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어,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조합원을 확대하여 6년이 지나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시돌 목장은 1963년 미국이 잉여 농산물 옥수수 원조를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도 받을 수 있게 바꾸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년에 수만 톤씩 1967년까지 무상 옥수수 원조를 받았다.⁶⁾ 무상으로 받은 옥수수는 개척농가 사업과 배합사료공장 건립을 동시에 착수하는 기반이 되었다. 옥수수는 개척농가 사업을 위해 아주 저렴하게 시장에 팔아 그 수입으로 이시돌 목장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고 이들을 30년 상환의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분양하였다. 1976년까지 지속된 토지 개간과 축산농가 정착 사업은 가구당 약 3만평의 98세대가 입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배합사료공장은 양돈 농가에 시중의 1/3가격으로 판매를 해 양돈업을 번성시키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전국적인 돼지 과다 생산으로 정부는 삼양, 삼성과 이시돌 목장 등 기업형 양돈 목장을 정리하도록 강제했다. 이시돌 목장의 경우 돼지를 직원들에게 분양했는데, 이 과정에서 돼지는 한림지역의 최고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제주는 전국적인 양돈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된다(양영철, 2013).

1970년대에 들어 이시돌 목장은 넓은 조성된 초지에 소를 길러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독일의 원조단체로부터 소 500마리의 지원에 추가로 150마리를 더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운

표 6. 이시돌 목장의 사업, 활동

시기	활동명	세부 활동내용	비고
1957년	4H 클럽 조직, 돼지 가축은행 운영	농촌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4H 단체를 한림성당에 나오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 외국 품종 돼지를 4H 회원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새끼를 낳으면 2마리 값은 계약	초등~고등학생 25명으로 시작
1959년	직조강습소	여성들에게 수직물 교육후 각 가정에서 양모사로 장갑, 양말 등 제작	1990년 한림수직사로 발전, 2005년까지 운영
1961년	이시돌 중앙실습목장 개설	현재의 이시돌 목장 부지를 매입, 목야지 조성 개간 작업, 목장내에서 가축관리, 농기구 사용 등 농업기술교육 실시	약 300만평, 직원수 180명으로 당시 제주도청보다 많은 수
1962년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설립	축산과 목야 개량, 생산물 가공 및 교육, 사회 사업 목적	비영리 재단법인
	한림신용협동조합 창립	제주에서 첫번째, 전국에서 7번째 ⁷⁾ 신용협동조합 설립, 성당 신자회원에서 한림지역 주민으로 확대	신용조합이 제주도에 자리잡자 일반인에게 이관
1963년	개척농가 조성사업 착수	1963~67년 미국 옥수수 무상원조를 받아, 헐값에 팔고, 그 수익금으로 축산 토지 약 1천헥타르를 구입, 개간하여 30년 상환 조건으로 분양	가구당 약 3만평 약 98세대 입주, 1976년 완료
1964년	이시돌 배합사료 공장 가동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잉여 옥수수를 이용해 사료 생산 시작, 대규모 양돈업 발달	현재의 이시돌 사료공장
1970년	이시돌의원 개원	한림지역에 의원을 개원하여 극빈자에게 무료진료(당시 무료 60%), 2001년 무료 호스피스 병동 추가하며 이시돌복지의원으로 변경	2007년 이시돌목장으로 이전,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운영
1972년	농가 종축개량용 소 도입	독일로부터의 원조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650마리 수입	
1973년	양돈 협업농가 조성	양돈사업 참여자를 모집, 기술, 시설, 사료지원과 종돈 분양으로 자립터전 제공	약 200세대
1981년	비육우와 젖소 도입	캐나다에서 600마리 수입, 다음해 호주에서 비육우 870마리, 젖소 156마리, 양 70마리 수입	일부 일반농가에 분양
	이시돌 양료원 개원	농촌 노인복지사업으로 개설하여 무의탁자 무료 수용	요양원으로 변경
1982년	노인학교 개교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개설	
1983년	농가 가축 입식	제주도에서 추천한 무축농가에게 시세의 반가격으로 송아지 분양	200세대에 350마리 분양
1984년	어린이집, 유치원 개원	농촌 3개 마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개설	
1985년	치즈가공, 우유가공 공장 운영	이시돌목장에서 생산한 우유 가공, 치즈 생산하여 판매	1991년 제주낙농협회에 이관
2003년	말 사업 추진	경주마를 도입, 마필 육성과 종자마 사업	
2007년	유기 농·축산물 인증	초지 유기농산물, 젖소 유기 축산물 국제, 국내 인증, 비육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주: 복지사업은 밑줄로 구분 표시함.

자료: 이시돌목장 홈페이지, 양영철(2013), 박재형(2004)를 수합하여 정리

송해 온다. 이때 한진그룹이 제주에 제동목장 부지를 구입하여 조성하는 중이어서 같이 350마리를 구입하여 운송한다. 이시돌 목장은 이후 지속적으로 소를 들여와 가장 많을 때는 2,500마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소 목축 확장은 양돈 사업에 대

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시기적으로 비슷해 충격을 덜 수 있었다(양영철, 2013).

이시돌 목장은 2년의 준비를 거쳐 1970년 비영리 병원인 이시돌 의원을 개원하며 복지 사업을 시작한다. 의사와 간호사는 목포의 성골롬반 병

원에서 파견 받고 나머지 인력은 제주에서 선발해 배치했다. 당시 제주도에는 병원이 드물고 싼 진료비와 빈번한 무료 진료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적자는 이시돌협회에서 충당했다. 이후 호스피스 병동을 국내 최초로 갖추며 이시돌복지지원으로 확장한다. 2007년 이시돌복지지원은 현 이시돌 목장내로 병원을 건립한 후 이전하여 무료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개원하고, 운영은 이시돌협회의 지원과 후원금으로 유지하고 있다(양영철, 2015).

이시돌 목장은 한림과 주변 지역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초기부터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라는 비영리 기관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성장과 분배를 모두 이룩한 혁신적 협동조합형 지역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MacAulay, 2001; 이인우 역, 2012). 보리와 조 등의 밭농사 위주의 농업이 대부분이던 현실에서 이시돌 목장은 축산업과 낙농업 등의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고, 토지와 가축, 사료 등의 지원과 다양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농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의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 생겨난 일자리는 지역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었고, 서민층 개인들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가축은행에서 시작, 신용협동조합, 양돈협업농가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이후에는 양돈, 축산, 낙농업을 제주 지역에서 생겨나는 협동조합에 넘겨주었다.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는 1962년 이래 돼지, 면양, 한림수직, 사료 공장, 소, 말 사육, 우유-치즈 가공, 신용조합 등 1~3차 산업 모든 분야의 사업을 개척하였다. 이시돌 목장은 지역 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혁신적 기업 활동을 전개하며 한림 지역의 성장과 경제적 자립, 사회복지 등에 힘쓰면서 지역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해왔다. 주민들에게는 기술을 교육시키고 개척 농가 사업을 통해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 수

준 사업이 정착되면 지역에 환원하고 수익금으로는 유치원, 양로원, 노인복지회관, 병원 등 지역 복지 사업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이시돌 목장의 활동은 외국의 혁신적 협동조합 경험과 유사하고, 지역 발전과 복지까지 고려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협동조합의 혁신적 실천 또는 사회적 행동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MacLeod, 1998; 정규호, 2008).⁸⁾

3) 지역 공동체 경제 모델: 다양성과 가능성

대안 경제 논의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는 지역 공동체 경제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Gibson-Graham, 2006; 꿈지모 역, 2013). 지역 공동체 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공간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책무가 중요시되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로 경제 공동체이자 결사체이다(정규호, 2008; 김창근, 2009). 현실적으로 공동체 경제에는 공유재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유재는 공동체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고려된다(꿈지모 역, 2013; 하승우, 2009). 지역 공동체의 경제-사회 기반을 이루어 왔던 공유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이기적 개인의 무임승차에 따른 문제로 고려하는 ‘공유재 비극론’에 의해 더욱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유재의 감소는 대다수 이기적 개인보다 시장과 국가 주도로 자원착취적 경제 성장과 자연의 상품화를 통해 이루어졌다(하승우, 2009; Heynen *et al.*, 2007). 최근에는 공유 경제가 숙박, 운송업 등에 적용되며 공유의 가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전통적 마을 단위의 사회경제 개념이 현대 사회의 수요에 부응해 재구성된 형태라 하겠다(윤홍근 외 역, 2010; 조용수, 2015). 실제 세계 많은 지역에서 공유재는 공동체

의 자율적인 이용과 관리의 규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 경제는 공유재와 공동체가 긴밀히 연계된 형태로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은 기존 공유재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를 유지하고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유재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제주 지역의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은 지역 공동체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마을 공동어장은 현재에도 지역 단위의 공유재에 기초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마을어장은 공유재인 해양 자원의 관리 그리고 저소득 어민을 위한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 공유지를 마을 단위로 배분한 것으로, 사유화를 통한 관리에 비해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용과 관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한규설, 2001; 김경동 2011). 제주의 마을 공동어장은 세계 다른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제도화된 규범, 예를 들어 명확하게 정의된 구획과 회원, 현지 조건과 부합하는 규칙, 집합적 선택 장치 또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불턱 회의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수확을 개인별 그리고 마을 공용으로 배분하는 규범과 더불어 할망바당, 학교바당 등을 지정해 공유재의 일부를 사회경제적 약자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배정하는 관행은 제주지역에서 더해지는 윤리적인 특징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 도모를 우선으로 하기에 광범위한 지역 공동체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이시돌 목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로 지역 공동체를 위한 비영리기업의 운영 형태를 따랐다(MacAulay, 2001; 이인우 역, 2012). 이시돌 목장의 사업 방식은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재단법인화하여 특정 이익 집단만을 위한 기업 조직으로 변질 될 수 있는 문제를 피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 회사법인은 특히 현행 후기 산업화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공동체들에게 적합한 지역발전 형태라 하겠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압축적인 경제 성장

과 개발에 길들여져 지방 정부는 성장에 대한 집착으로 국가예산 및 프로젝트의 유치를 통해 발전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이중현, 2014).

최근 국내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서구에서 시도된 형태들을 시험 삼아 들여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2012년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을 시행하며 협동조합은 그 수가 급작스럽게 증가해 2015년 현재 8천 개를 넘어서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2015). 이러한 국내 협동조합의 급격한 증가는 기본적인 요건만을 갖추며 시작한 것으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우 연대를 통해 일자리와 재화를 만들어 나가며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다수의 개발도상국 상황에서는 자본이나 폭넓은 주민 참여가 부족해 인적자원 개발과 공동체 기업 형성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이시돌 목장은 주변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도자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며 추진한 경험은 실천적 혁신 또는 사회적 행동 모델의 협동조합 변형으로 고려할 수 있다(MacAulay, 2001; 정규호, 2008). 이는 초기부터 마을 전체를 공동체적 단위로 접근하기 보다는 보다 소지역 또는 사업 중심의 공동체 복원 활동을 펼치는 문제해결 방식을 적용한 방식이다. 자발적 참여와 호혜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문제해결 방식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열린 사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제주 이시돌 목장의 발전 과정은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사업체이자 결사체의 속성을 가지는 협동조합형 지역발전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⁹⁾

지역 공동체 경제는 사람들간의 공동체 의식이 핵심을 이루는데 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또는 헌신적 활동가가 효과적인 사업을, 특히 외부에서 주어진 사업이 아니라 스스

로 찾아낸 경우 공동체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마을 공동체를 지정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마을 공동체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김태영, 2012). 마을 공동체의 규모는 작게 시작할수록,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성격이 약해 구성원의 개별 목적이 사회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수단적 공동체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상황이 유럽의 경우도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된 것에 비추어,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형성된,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 방식을 협동조합으로 포괄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시돌 목장은 주변 경제에서 경제적으로 충분한 자본과 경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비영리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협동조합은 공식적인 하나의 방안만이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고, 각각의 지역에서 그 특성과 전통을 살피고 그에 맞는 사업을 지역에 현존하는 조직과 함께 시작하라는 권고는 협동조합 자체보다 지역을, 지역살임을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협동조합은 이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소영, 2012). 유럽형 협동조합을 일단 답습해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상황과 사업의 지역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시돌 목장의 경우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혁신적 또는 협동조합형 공동체 경제로 고려할 수 있다.

지역 상황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이시돌 목장 발전 경험이 광범위하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한림 지역에만 한정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럽에서 협동조합이 성공하고 확대될 수 있는 그리고 크게 내부 분열이 없는 배경에는 종교 공동체가 작용했다면, 제주의 경우 종교적 차이가 협동조합형 지역 발전이 주변으로 확대되는데 장애가 되었을 수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정부가 새마을 운동을 농촌 지역에서 전개하며 지역

사회 자체적으로 주도한 사업은 상충적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들은 정부주도 사업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자율 참여적 이시돌 목장 발전 방식에는 관심을 덜 기울였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다.

지역 공동체 경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운영되는데, 제주의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은 공유재 기반 그리고 협동조합형 지역 발전의 공동체 경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보편적 공동체 경제 특성과 더불어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모두 담고 있는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은 대안 경제 논의와 실천 방안 모색에 성공 사례로 더할 수 있다.

4. 결론

주류 시장경제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안 경제 논의는 성장과 경쟁보다 활기와 협동, 민간-비지역 소유보다 공동체-지역 소유 등을 강조하며 중간 경제, 사회적 경제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지역 공동체 경제를 지향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후기발전 대안으로 실제 다양하게 운영되는 경제 방식에 대한 관심은 서구의 경험과 사례에 치중하는데, 이는 다양한 논의와 경험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농촌 배경이 강하고 기술과 자원이 부족하기에 기본적인 생활경제로 마을 공동체의 공유재와 상호부조에 기초한 경제 활동이 현재에도 남아 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대다수는 실제로 그리고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 글은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경제의 사례로, 제주의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을 공유재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 그리고 지역 주민의 활기와 협동에 기초한 협동조합형 지역 발

전 사례로 제시하였다. 제주는 마을 공동어장의 이용과 관리를 세계 다른 지역의 공유재 관리 규범인 집합적 참여, 갈등 해결 장치 등과 같은 규칙과 관행에 기초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회경제적 약자나 공익적 분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시돌 목장은 낙후된 농촌 환경에서 혁신적 기업가가 비영리기업 형태로 마을 주민들과 사업을 진행하며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한 협동조합형 지역 발전을 주도하였다. 이시돌 목장은 초기 가족은행, 신용조합 활동에서 시작하여 점차 제조, 유통, 사료 등 제조업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여기서 얻어진 수익은 의료, 아동, 노인 복지를 위해 사용하며 성장과 분배를 모두 실천한 혁신적 사례이다.

지역 공동체 경제가 세계화되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조직체를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성공 경험을 누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제주의 마을 공동어장과 이시돌 목장의 협동조합형 지역 발전은 현재에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더해질 수 있다. 제주의 이러한 공동체 경제 사례는 전통적 생활양식 그리고 특정 지도자의 리더십에 기초한 대안 경제 모색의 노력에서 찾거나 하는 공유재 기반의 그리고 협동조합형 혁신적 공동체 경제로 세계 다른 지역과의 유사성을 보인다. 지역 공동체 경제의 원천적 어려움은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내부 결속이 약화되지 않는 것인데, 공동체를 보다 구체적이고 공유 경제의 단위인 지역, 마을 공동체로 고려하는 것이 양자를 모두 견인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사회를 넘어서는 사업의 확장 그리고 개방되어가는 경제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 예를 들어 제주의 공동목장 조합원들이 토지 매각 수익의 유혹으로 분열하는 경험 등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의 지역 공동체 경제 사례는 논의적 측면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대안 경제 논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소규모 섬지역이기에 구성원의 동질성 유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역특수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보편적인 원리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제주의 사례는 외국의 경험에 비해 시행착오를 줄이며 국내 다른 지역에 적용해 보기에 적합할 것이며, 지역 공동체 경제를 대안 경제로 시작하기보다 보완 경제로 고려하며 신중히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성공 경험을 만들어 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주

- 1) 자본주의적 방식내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 또한 다양하게 논의되는데, 새로운 접근으로 글로벌시대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에서의 문화콘텐츠 기반 지역 발전, 지역회복력과 사회적 혁신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역할이 중요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도 등을 들 수 있다(이병민·이원호, 2014; 이원호, 2013).
- 2)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합리적 소비,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우버택시 등을 통해 비용 절감,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경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 수요, 세수 감소라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도 표출되고 있다(조용수, 2015).
- 3) 공동어장은 공동어업, 즉 일정한 지역 내 거주하는 어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면허받은 어업이 행해지는 어장으로 구획은 지역 어촌계 단위로 제1종 공동어업의 어장은 평균 수심 10미터(강원·경북 및 제주는 15미터) 이내, 제2종 공동어업의 어장은 해안선의 수면이 가장 높을 때 육지와 해변의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제3종 공동어업은 1,000미터 이내의 수면으로 제한한다. 공동어업의 제1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 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물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2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인망, 선인망 또는 들망 등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어업, 제3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정치어업을 비롯하여 제1종 및 제2종 공동어업에서 사용하는 어구류 이외에 그물과 낚

- 시 어구 등을 사용하여 포획하는 어업으로 구분된다(한규설, 2001).
- 4) 제주도 공유재인 마을어장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규범은 마을어장마다 어촌계 규약, 마을 어장 행사 계약서, 향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제주도 해녀박물관에서 제주도내 모든 마을어장을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집,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2009)에서 볼 수 있다.
 - 5) 대다수의 협동조합은 천주교 신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이는데,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호세 마리아 신부, 캐나다 안티고니쉬 협동조합은 톰킨과 코디 신부, 한국의 원주협동조합은 지학순 주교가 초기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6) 미국은 잉여 농산물 원조를 정치·종교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아래 민간단체도 받을 수 있게 하자 맥그린치 신부는 한림성당 주임신부 직을 사직하고,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전무로 전직한 후 본격적으로 제주 농촌개발사업을 시작한다(양영철, 2014: 11회).
 - 7) 한국의 신용협동조합은 1959년 메리놀회 소속인 가브리엘 수녀님에 의해 부산에서 처음 개설되었다. 당시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부산은 은행 문턱이 높아 높은 이자로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해 성가 신용협동조합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에 두 곳, 서울 등지에 개설된 후 제주 한림에 7번째로 생겼는데, 농촌지역으로는 전국 최초이다(박재형, 2005).
 - 8) 사회적 행동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에서 주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참여와 문제 해결자 또는 정책의 수동적 수용자 입장의 풀뿌리 거버넌스 모델과 관료적 모델 양 극단의 중간 형태로 주민은 설득 및 동원의 대상이 되는 형태를 의미한다(정규호, 2008).
 - 9) 원주는 국내 협동조합의 메카로 불리는 곳으로, 원주의 경험 또한 서구형 협동조합이라기보다 지학순 주교와 사회운동가인 장일순의 주도로 협동조합이자 지역사회 결사체 운동을 겸하며 보편화될 수 있었으며,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여 지역 경제의 자급을 추구해 왔다(김소남, 2014: 신명호·이아름, 2013).

참고문헌

- 구양미 외 역, 2014, 세계경제공간의 변동, 서울: 시그마프레스(=Dicken, Peter, 2011,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6th edition, The Guilford Press).
- 권상철·박경환 역, 2014, 환경피플: 이산화탄소에서 프렌치프라이까지, 한올아카데미(=Robbins, Paul, Hintz, John, and Moore, Sarah, 2010, *Environment and Society: a Critical Introduction*, Wiley-Blackwell).
- 꿈지모 역, 2013,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동연(Mies, Maria and Bennholdt-Thomsen, Veronica, 1997, *Eine Kuh für Hillary: die Subsistenzperspektive*, Munchen).
- 김경동, 2011,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순차적 해소를 통한 공유의 비극의 자치적 해결방안 모색: 제주도 동일리 해녀의 자치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3), pp.163-188.
- 김경희, 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pp.126-150.
- 김기홍, 2014, 마을의 재발견: 작은 정치·경제·복지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올림.
- 김상준, 2008, “중간경제론: 대안경제의 논리와 영역,” 경제와 사회 80, pp.140-164.
- 김성오 외, 2013,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 협동조합 창업과 경영의 길잡이, 겨울나무.
- 김소남, 2014, 1960-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준, 2004, 어촌사회의 변동과 해양생태, 민속원.
- 김창근, 2009,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경제적인 지역화 대안,” 마르크스주의 연구 6(4), pp.12-55.
- 김태영, 2012, “마을 공동체 복원의 고려요소,” 대한건축학회지 56(6), pp.14-19.
- 나종석, 2013, “마을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 ‘마을인문학’의 구체화를 향해,” 사회와 철학 26, pp.1-32.
- 박재형, 2004,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신부, 가톨릭출판사.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pp.11-46.
- 신명호·이아름, 2013, “원주 지역 협동조합의 생성과 지

- 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문화연구 36(4), pp.31-58.
- 안미정, 2008, 제주 잠수의 바다밭, 제주대학교출판부.
- 양영철, 2013~2015, 양영철 교수가 전하는 ‘제주근대화’의 선구자’ 맥그린치 신부, 제이누리 인터넷신문 1~26회 연재물.
- 양영철, 2013,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사랑과 열매, 하나출판.
- 윤홍근 외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코리아(=Ostrom, Eli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이경란, 2013, “한국 근현대 협동운동의 역사와 생활협동조합,” 역사비평 102, pp.40-71.
- 이병민·이원호, 2014,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문화변동과 지역발전: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2), pp.215-230.
- 이소영, 2012, “지역이 살아야 협동조합도 가능하다!,” 농촌사회 22(2), pp.287-294.
- 이원호, 2013, “사회적 혁신과 지역발전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 광역단위 도시·개발공사 사례를 통한 시론적 검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2), pp.310-321.
- 이인우 역, 2012,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 몬드라곤을 보는 또 다른 시각, 한국협동조합연구소(=MacLeod, Greg, 1998, *From Mondragon to America: Experiments i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Univ. College of Cape Breton).
- 이종수, 2015,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박영사.
- 이종현, 2014, “협동조합 발전의 초기 조건에 대한 연구: 영국의 로치데일과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90, pp.229-261.
- 정규호, 2008, “풀뿌리 사회경제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할: 원주 지역 협동조합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6(1), pp.113-147.
- 정건화, 2012, “민주주의, 지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 동향과 전망 86, pp.7-43.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 조용수, 2015, 오래된 미래 ‘공유경제’ 개방성과 시장원리로 세상 바꾼다, LGERI 리포트, 3월, pp.2-14.
- 조효제 역, 2013,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MacMichael, Philip, 2011,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 SAGE Publications, Inc.).
- 채중헌, 2013, 지역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최영진, 2010, “희망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차이’ 드러내기: 자본주의 공간성에 대한 Harvey와 Gibson-Graham 비교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pp.111-125.
- 최현·정영신·김자경 역, 2014,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인문화사(=Inoue Makoto, 2008, *Komonzu-ron no Chosen*, Shinyonon LTD.).
- 하승우, 2013, “협동조합운동의 흐름과 비판적 점검,” 문화과학 73, pp.91-109.
- 하승우, 2009,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의 민주주의로,” 녹색평론 108, pp.64-78.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http://www.socialenterprise.or.kr/cooperative>, 최종 열람일: 2015년 10월23일).
- 한규설, 2001, (어업경제사를 통해본) 한국어업제도 변천의 100년, 선학사.
- 황진태, 2012,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대안적 경제공간 만들기,” 공간과 사회 22(2), pp.78-113.
- Agrawal, Arun, 2001, “Common Property Institutions and Sustainable Governance of Resources,” *World Development* 29(10), pp.1649-1672.
- Bssurto, Xavier *et al.*, 2012, “The Emergence of Access Controls in Small-Scale Fishing Comm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dividual Licenses and Common Property-Rights in Two Mexican Communities,” *Human Ecology* 40(4), pp.597-609.
- Escobar, Arturo, 2012,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ckey, Amanda, 2011, “The Focus has to be on Helping People Make a Living’: Exploring Diverse Economies and Alternative Economic Spaces”, *Geogra-*

- phy Compass* 5(5), pp.237-248.
- Gibson-Graham, J.K, 2006, *Postcapitalist Politic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ibson-Graham, J.K, 2005, "Surplus Possibilities: Postdevelopment and Community Economie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6(1), pp.4-26.
- Gritzias, G. and Kavoulakos, K., 2015, "Diverse economies and alternative spaces: An overview of approaches and practice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early online version.
- Heynen, Nik, McCarthy, James, Prudham, Scott, and Robbins, Paul, 2007, *Neoliberal Environments: False Promises and Unnatural Consequences*, Routledge.
- MacAulay, Scott, 2001, "The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tradition in Eastern Nova Scotia, Canada: ideological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between the Antigonish Movement and the Family of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6(2), pp.111-121.
- McGregor, Andrew, 2009, New Possibilities? Shifts in Post-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Geography Compass* 3(5), pp.1688-1702.
- Mansfield, Becky, 2004, "Neoliberalism in the oceans: "rationalization," Property rights, and the Commons question," *Geoforum* 35, pp.313-326.
- MacLeod, Greg, 1998, The Community Business Corporation: *La Empresa Social*, in Gertrude Anne MacIntyre ed., *Persepectives on Communities: A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Roundtable*, UCCB Press, pp.43-65.
- Ovando, Daniel *et al.*, 2013, "Conservation incentives and collective choices in cooperative fisheries," *Marine Policy* 37, pp.132-140.
- Peredo, Ana Maria, and Chrisman, James J., 2006, "Toward a theory of community-based enterpris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2), pp.309-328.
- Peuter, Greig de and Dyer-Witherford, Nick, 2010, "Commons and Cooperatives," *Affinities: A Journal of Radical Theory, Culture, and Action* 4(1), pp.30-56.
- St. Martin, Kevin, 2009, "Toward a Cartography of the Commons: Constitut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ssibilities of Place,"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1(4), pp.493-507.
- Thoms, Christopher, 2008, "Community control of resources and the challenge of improving local livelihoods: a critical examination of community forestry in Nepal," *Geoforum* 39, pp.1452-1465.

교신: 권상철, 63243,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전화: 064-754-3234, 이메일: kwonsc@jejunu.ac.kr

Correspondence: Sangcheol Kwon, Geography Education Major,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 City, Jeju 63243, Korea, Tel: 82-64-754-3234, E-mail: kwonsc@jejunu.ac.kr

최초투고일 2015년 11월 10일

수정일 2015년 11월 26일

최종접수일 2015년 11월 27일